
대학생의 영어가정법 습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quisition of English Subjunctive Mood in EFL College Students

김경훈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Kyung-Hoon Kim(core-777@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가정법습득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일반 영어 능력과 가정법 습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성별에 따라 영어 가정법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 영어 능숙도에 따라 영어 가정법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소재의 C 대학교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73명의 학생들이며 남학생들이 37명, 여학생들이 36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가정법에 관한 40문제를 제시하였고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방법을 실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가정법 습득의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영어 능숙도에 따른 가정법 습득의 결과는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중심어 : | 가정법 | 성별 | 능숙도 | 습득 | 상관관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c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cquiring the subjunctive mood. To research this, we will propose three subjects of study as below. First, what correlations exist between the general English ability and the English subjunctive mood acquisition? Second what difference is there in English subjunctive mood acquisition to gender? Third, what difference is there in the English subjunctive mood acquisition according to English proficiency?

The subject of a sample survey was 36 female and 37 male students, 73 students in total, who take English courses as a required subject at 'C' university in Gwangju. The necessary data for this study was obtain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40 questions about the subjunctive mood.

The data analyzing method was ANOVA(analysis of variance between groups) through the statistics program SPSS 12.0.

When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were analys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glish subjunctive mood acquisition according to gender, but according to English proficiency, the English subjunctive mood acquisition was different: advanced-, intermediate- and low group.

■ keyword : | Subjunctive Mood | Gender | Proficiency | Acquisition | Correlation |

I. 서론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 영역중의 하나로 가정법을 꼽는다. 영어의 가정법은 문자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if절로 대표되는 전제절(condition)과 서법 조동사 과거 시제를 포함한 귀결절(consequent)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어의 가정법은 화자가 전제절의 반사실성을 알고 있을 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제의 반사실성(counter factuality)과 화자가 전제절의 반사실성을 모르고 있을 때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사실성(non factuality)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는 가정법 구문에 대한 학습에 전제절과 귀결절이 다 같이 나타난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제절이 없는 가정법 구문의 이해나 사용에 많은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의 영어 교사들이 전통적인 문법서에 의존하여 학습자들에게 가정법을 표면적으로 가르쳐 왔다. 이는 가정법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법에 대해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가정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정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 일반영어 능력과 영어 가정법 습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성별에 따라 영어 가정법 습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습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어 가정법의 정의

문장의 진술에 있어서, 그 진술이 사실을 그대로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는 요망, 간망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이는 동사의 형태를 가정법이라고 한다. Poustma(1926)[14]는 서법(Mood)이란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인 여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형태상으로는 이러한 태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일정한 언어형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서법을 정의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형태(form)와 의미(meaning)를 기준으로 삼는다. Jespersen(1924)[11]은 의미보다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서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서법이란 문장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갖는 일정한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라고 정의 하지만, 화자의 심적 태도가 동사의 형태에 의해서 나타날 때만 서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범주가 아니라 통사적인 범주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Sonnenschein(1926)[16]은 형태보다 의미에 중점을 두어, 서법이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시제의 집단으로 보고 있다. 또 조성식(1983)[4]은 'mood'라는 술어가 내포하는 어원적인 뜻을 기준으로 서법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서법이란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 내지 태도를 가지고 진술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문법 범주라 할 수 있으며, 문법에서 동사의 일정한 형태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취하는 심적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형태와 의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서법을 정의하고 있다. 현대 영어에서 서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직설법(indicative mood), 가상, 의심, 소망 등을 말하는 가정법(subjunctive mood), 그리고 사람의 강력한 명령이나 의사를 나타내는 명령법(imperative mood)등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가정법에 대해 Curme(1935)[7]은 사상진술(thought statement)이고 명제에 대한 불확신의 태도를 표현하며 또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혀 없는 희망이나 믿음을 가지고 욕구, 소원, 의도 등의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서법이라고 언급했다.

2. 영어 가정법 구문

가정법은 if절을 포함한 전제절과 서법 조동사 과거 시제형을 포함한 귀결절로 이루어진다. 가정법의 전제

절은 직접조건(direct condition)에 속하며 이는 간접조건(indirect condition)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Quirk et al.(1972)[15]은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1) a. She's far too considerate, if I may say so.
b. She and I are just good friends, if you understand me.
- (2) a. If it rains, the match will be cancelled.
b. If you put the baby down, she'll cry.
- (3) If he changed his opinions, he'd be a more likeable person.

(1a)와 (1b)의 if절은 주절의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절과 조건절간에 화용론적 의미(pragmatical meaning)만을 가지는 간접 조건의 예이다. 반면 (2a)와 (2b)는 직접 조건의 예로, 주절 명제의 진리치는 조건절에서 제시된 조건의 충족 여부에 의존하여 조건절은 주절상황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Quick et al(1972)[15]은 직접 조건에 대해 개방조건(open condition)과 가정적 조건(hypothetical condition)이 있다고 하면서 (2a)와 (2b)는 개방조건에 속하는 직접조건으로 조건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단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3)은 직접조건 중에서 가정적 조건에 속한다고 하였다. 가정적 조건이란 비현실적 조건(unreal condition) 또는 반사실 조건(counter factual condition)이라고 불리며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법 구문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Curme(1931)[6]은 가정법을 현재 가정법군(present subjunctive group)과 과거 가정법군(past subjunctive group)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서법조동사 현재 + 동사원형”은 가정법 현재형이라 하고, “서법조동사 현재 + 현재완료형”은 가정법 현재 완료형, “서법조동사 과거 + 동사원형”은 가정법 과거형, 그리고 “서법조동사 과거 + 현재완료형”은 가정법 과거완료형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현재 가정법군과 과거 가정법군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가정법군에 속하는 시제형을 썼을 경우에는 화자가 진술내용을 주관적으로 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긍정적 태도(affirmative attitude)를 나타내는 반면, 과거 가정법군에 속하는 시제형을 썼을 경우에는 화자는 진술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negative attitude)를 취하여 비현실성이나 불가능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4) a. If she know my address, she will write to me.
b. If she knew my address, she would write to me.
- c. If he have arrived at the meeting already, please tell him to come here at once.
- d. If he had arrived at the meeting in time, the result might have been different.

(4a)의 know는 가정법 현재형으로 현재 가정법군에 속하고 나의 주소를 알고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며 (4b)의 knew는 가정법 과거형으로 과거 가정법군에 속하고 나의 주소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예견된다. (4c)는 가정법 현재완료형이며 그가 도착했는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예견 하고 있으며, (4d) 가정법 과거완료형으로 그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화자가 인정하고 있다.

현대 영어에서는 현재 가정법군이 직설법 현재형이나 직설법 현재완료형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

Hornby(1957)[10]는 현대영어에서는 “If it rain tomorrow(가정법 현재)”에서의 rain처럼 동사의 굴절형(inflectional form)을 쓰는 대신 “If it rains tomorrow(직설법 현재)”에서의 rains처럼 직설법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단지 격식을 차린 문체에서는 종종 가정법 현재가 사용되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는 직설법 단순 현재형이 오늘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정법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 현재완료형도 직설법 현재완료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Frank(1972)[9]는 조건절 안에서 과거의 시간을 언급할 때에는 가정법 현재완료형 대신에 보통 직설법 현재 완료형이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어 가정법 구문에 대해 Palmer(1990)[13]는 가정법을 비현실 조건절로 설명하였다. 즉 귀결절의 진리치를 결정하는 전제절의 진리치에 대해 화자가 의심을 표현하는 문장인 비현실 조건절을 가정법구문으로 보아 가정적 의미를 가정법 구문이 표현한다고 하였고, 그 형태는 동사의 과거 시제형을 사용한다고 언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 (5) a. If John comes, Mary will leave.
- b. If John came, Mary would leave.
- c. If it rained, the match would be cancelled.
- d. If it had rained, the match would have been cancelled.

(5a)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고 (5b)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의심을 표현하므로 가정법 구문으로 설명하였다. (5c)는 현재 또는 미래 시간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진리치는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나 (5d)는 과거시간을 지시하는 가정법구문으로 진리치가 알려진 과거시간을 가리키므로 반사실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Leech(1994)[12]는 가정법이 표현하는 가정적 의미는 명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고, 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추정(assumption)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어 가정법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예를 들어 3분법(trichotomy)으로 가정법 구문을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 (6) a. If your father had caught us, he would have been furious.
- b. If you really cared for your children, you'd look after them properly.
- c. If it snowed tomorrow, the match would have to be cancelled.

(6a)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으로서 반사실(contrary to fact)을 의미하고, (6b)와 (6c)는 가정법 과

거 구문으로 각각 반가정(contrary to assumption)과 반가능성(contrary to expectation)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세 문장들이 각각 그 시간 지시에 따라서 (6a)는 과거 사실을 부정하고 (6b)는 현재의 가정을 부정하고 (6c)는 미래에 관한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언급하고 있다.

III. 실험연구

1. 실험대상 및 도구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립 대학교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학생집단 36명과 남학생 집단 37명이었다. 영어 능숙도의 척도로는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공인 TOEIC 시험의 점수를 토대로 하여 700점 이상의 학생을 상위집단 17명, 500점 이상의 학생을 중위집단 32명 그리고 500점 이하의 집단을 하위집단 24명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실험집단의 분류

	항목	인원수
성별	남학생	37
	여학생	36
수준별	상위집단	17
	중위집단	32
	하위집단	24
합계		73

설문지는 가정법에 관한 문제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미래에 관한 문제를 각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실험 도구

	항목	문항수
가정법	가정법현재	10
	가정법과거	10
	가정법과거완료	10
	가정법미래	10
합계		40

2. 실험 분석 및 결과

가정법 습득에 관한 설문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 일반영어 능력과 가정법 습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상관관계란 두 변수 간의 함수관계를 직선으로 상정하고 분산도 상의 점들이 직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선형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3. 상관분석 결과

	일반영어 능력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미래
일반영어능력	1				
가정법 현재	-.835**	1			
가정법 과거	-.647**	.815*	1		
가정법 과거완료	-.614**	.627**	.254	1	
가정법 미래	-.285*	.257*	.003	.031	1

** .P<.01
* .P<.05

일반 영어 능력과 가정법 현재와의 상관관계 $r = -.835$ 로서 통계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반 영어 능력과 가정법 과거의 상관관계 $r = -.647$ 로서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영어 능력과 가정법과거완료의 상관관계는 $r = -.614$ 로서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일반 영어 능력과 가정법 미래의 상관관계 $r = -.285$ 로서 통계적으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상관관계 $r = .815$ 으로서 통계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과거완료의 상관관계 $r = .627$ 로서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의 상관관계 $r = .257$ 로서 통계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법과거와 가정법과거완료의 상관관계 $r = .254$ 로서 통계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정법과거와 가정법 미래 역시 $r = .003$ 로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법과거완료와 가정법미래의 상관관계도 $r = .031$ 로 통계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문제 2 : 성별에 따라 가정법 습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라 가정법 습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F검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성별에 따른 집단별 일원 분산분석

	SS	df	MS	F	Sig
Between Group	593.350	1	593.350	1.673	.212
Within Group	2170.300	71	374.143		
Total	2229.650	72			

[표 4]의 결과를 보면 F분포표에서 자유도 1, 71 일때 유의수준 $p < .05$ 에서 임계치는 5.29인데, 계산된 F통계량은 $1.673 < 5.29$ 이므로 두 집단간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채택한다. 따라서 두 집단의 가정법 습득의 평균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의 가정법 습득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문제 3 :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습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습득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상위집단과 중위집단 그리고 하위집단의 F검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 영어 능숙도에 따른 집단별 일원분산분석

	SS	df	MS	F	Sig
Between Group	2521.822	2	1260.911	22.851	.000
Within Group	10594.711	70	55.181		
Total	13116.533	72			

[표 5]의 결과를 보면 F분포표에서 자유도가 2.70일 때 유의수준 $p < .05$ 에서 임계치는 3.93인데 계산된 F 통계량은 $22.851 > 3.93$ 이므로 세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한다. 따라서 세 집단의 가정법의 평균은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6. 사후 다중 비교 검증

속달도	속달도	MD	SE	Sig
상위	중위	4.67*	1.21	.000
	하위	10.53*	1.56	.000
중위	상위	-4.67*	1.21	.000
	하위	5.86*	1.44	.000
하위	상위	-10.53*	1.56	.000
	중위	-5.86*	1.44	.000

집단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어떤 집단끼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NOVA 사후검증을 하여야 한다. Tukey 방법으로 계산된 다중비교 검증의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각각의 가정법 습득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실험 하였다.

첫째,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현재에 대해 세 집단의 F 검증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가정법 현재의 집단별 일원 분산분석

	SS	df	MS	F	Sig
Between Group	545.734	2	272.867	20.401	.000
Within Group	2568.061	70	13.375		
Total	3113.795	72			

[표 7]의 결과를 보면 F 분포표에서 자유도가 2.70일 때 유의수준 $p < .05$ 에서 임계치는 3.93인데 계산된 통계량 = $20.401 > 3.93$ 이므로 세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한다. 따라서 세 집단의 가정법 현재의 평균은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8. 사후 다중 비교 검증

속달도	속달도	MD	SE	Sig
상위	중위	2.23*	1.21	.000
	하위	4.88*	1.56	.000
중위	상위	-2.23*	1.21	.000
	하위	2.65*	1.44	.000
하위	상위	-4.88*	1.56	.000
	중위	-2.65*	1.44	.000

집단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어떤 집단끼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NOVA 사후검증을 하여야 한다. Tukey 방법으로 계산된 다중비교 검증의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과거에 대해 세 집단의 F 검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9. 가정법 과거의 집단별 일원 분산분석

	SS	df	MS	F	Sig
Between Group	175.320	2	87.660	17.809	.000
Within Group	945.0591	70	4.992		
Total	1120.379	72			

[표 9]의 결과를 보면 F 분포표에서 자유도가 2.70일 때 유의수준 $p < .05$ 에서 임계치는 3.93인데 계산된 통계량 = $17.809 > 3.93$ 이므로 세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한다. 따라서 세 집단의 가정법 현재의 평균은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0. 사후 다중 비교 검증

속달도	속달도	MD	SE	Sig
상위	중위	1.43*	.49	.004
	하위	2.85*	.63	.000
중위	상위	-1.43*	.49	.004
	하위	1.42*	.58	.017
하위	상위	-2.85*	.63	.000
	중위	-1.42*	.58	.017

집단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면 다음으로 어떤 집단끼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NOVA 사후검증을 하여야 한다. Tukey 방법으로 계산된 다중비교 검증의 결과를 보며 유의수준 .05에서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과거완료에 대해 세 집단의 F검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1. 가정법 과거완료의 집단별 일원 분산분석

	SS	df	MS	F	Sig
Between Group	181.073	2	90.536	13.609	.000
Within Group	1277.307	70	6.653		
Total	1458.379	72			

[표 11]의 결과를 보면 F 분포표에서 자유도가 2.70 일 때 유의수준 $p < .05$ 에서 임계치는 3.93인데 계산된 통계량 = 13.609 > 3.93이므로 세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한다. 따라서 세 집단의 가정법 현재의 평균은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2. 사후 다중 비교 검증

숙달도	숙달도	MD	SE	Sig
상위	중위	.82	.42	.052
	하위	2.81*	.54	.000
중위	상위	-.82*	.42	.052
	하위	1.98*	.50	.000
하위	상위	-2.81*	.54	.000
	중위	-1.98*	.50	.000

집단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어떤 집단끼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NOVA 사후검증을 하여야 한다. Tukey 방법으로 계산된 다중비교 검증의 결과를 보며 유의수준 .05에서 상위집단, 하위집단,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넷째, 영어 능숙도에 따라 가정법 미래에 대해 세 집단의 F검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3. 가정법 미래의 집단별 일원 분산분석

	SS	df	MS	F	Sig
Between Group	187.132	2	93.566	8.433	.000
Within Group	2130.335	70	11.096		
Total	2317.467	72			

[표 13]의 결과를 보면 F 분포표에서 자유도가 2.70 일 때 유의수준 $p < .05$ 에서 임계치는 3.93인데 계산된 통계량 = 8.433 > 3.93이므로 세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한다. 따라서 세 집단의 가정법 현재의 평균은 매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4. 사후 다중 비교 검증

숙달도	숙달도	MD	SE	Sig
상위	중위	1.12*	.54	.041
	하위	2.88*	.70	.000
중위	상위	-1.12*	.54	.041
	하위	1.76*	.64	.007
하위	상위	-2.88*	.70	.000
	중위	-1.76*	.64	.007

집단별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어떤 집단끼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ANOVA 사후검증을 하여야 한다. Tukey 방법으로 계산된 다중비교 검증의 결과를 보며 유의수준 .05에서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법을 학습하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각각의 가정법에 관한 40문제를 제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가정법 습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영어 능숙도에 따라서는 습득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상위 집단의 학습자들은 각각의 용법에 대해 가정법 습득을 잘하고 있었지만,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학습자들은 가정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if*가 생략된 구문에서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즉 가정법 이라하면 반드시 *if*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if* 절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독해 위주의 문법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습자들은 *if* 절이 만약 ~라면으로 해석 되면 조건절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절의 전제가 되는 직접조건만이 가정법의 조건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해줘야 한다. 그리고 조건절 중에서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현실적 조건과 비현실적 조건, 즉 가상 조건문에 대해 똑같이 *if*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두 문장은 의미차이가 존재한다. 현실적 조건은 조건의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 진실 중립적인 문장인 반면, 가정법 문장인 비현실적 조건은 실현 가능성을 배제한 지실 부정적 문장이다. 따라서 똑같이 “만약~한다면”이라고 해석된다 할지라도 조건의 실현 가능성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여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와 같고, 가정법 과거완료는 직설법 과거와 같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직설법은 사실에 근거를 둔 문장으로 가정법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의미까지 전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설법 구문은 직설법 구문으로, 가정법 구문은 가정법 구문으로 그 문장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법 습득에 대하여 성별, 수준별로 나누어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인 외에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이 가정법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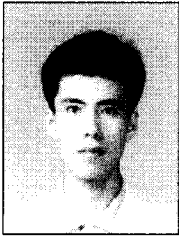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고태홍, *영어의 가상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 [2] 김태호,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법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3] 문용, *영문법 I*,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4] 조성식, *영문법 개관 II*, 신아사, 1983.
- [5] 홍지연, *영어 가정법 구문에 대한 연구: if-절이 없는 가정법 구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6] G. O. Curme, *Parts of Speech and Accidence*, Heath & Company, 1931.
- [7] G. O. Curme, *Syntax*, Heath & Company, 1935.
- [8] G. O. Curme, *English Grammar*, Barnes and Noble, Inc, 1947.
- [9] M. Frank, *Modern English: A Practical Reference Guid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2.
- [10] A. S. Hornby,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 [11] O. Jespersen, *The Philosophy of Grammar*,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24.
- [12] G. N. Leech,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gman Group Ltd, 1994.
- [13] F. R. Palmer, *Modality and English Modals*, Longman Group Ltd, 1990.
- [14] H. A. Poustm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Noordhoff, 1926.
- [15] Quirk. et al,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1972.
- [16] E. A. Sonnenschein, *The Soul of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6.

저 자 소 개

김 경 훈(Kyung-Hoo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조선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영문학사)
- 2002년 8월 : 조선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조선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문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영어 교육, 멀티미디어